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23 조선의 여성, 공덕의 옷을 발원하다



▶한줄 요약
조선 후기 여성 불자들은 가사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복전으로 인식해 자수가사와 가사도를 발원했다.

가사에 공덕 수놓아 해탈 발원하다

출가 수행자의 법의인 가사(袈裟)는 본래 세속의 사람이 버린 헌 천을 모아 꿰매서 만든 옷에서 시작됐다. 더럽고 쓸모없어진 옷을 모아 지었기에 가사를 '분소의(糞掃衣)'라고도 불렀다. 가사를 이르는 다른 말로 '납의(衲衣)'가 있다. 낡은 천 조각들을 누덕누덕 기워 만든 옷이기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사를 부르는 또 다른 말로 '복전의(福田衣)'와 '공덕의(功德衣)'도 있다. 가사를 출가자에게 보시하는 것만으로도 재가자가 복을 지을 수 있기에 생긴 말이다.

'공덕의 옷'으로서 만들어진 가사는 원래의 누더기 가사와는 모양새가 달랐다. 금실로 무늬를 짜 넣은 값비싼 비단으로 가사를 짓거나, 비단 바탕에 아름다운 색실로 자수를 해 장엄한 것이다. 이 같은 특별한 가사는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걸쳐 국왕들이 나라의 안녕과 국난의 극복 등에 기여한 큰스님들께 하사한 예우와 감사의 상징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불법승의 삼보(三寶)를 구상적인 도상으로 수놓은 자수가사(刺繡袈裟)와 이를 회화적으로 옮긴 가사탱(袈裟幀)도 출현했다.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자수가사와 서울 청룡사(靑龍寺) 가사도(袈裟圖)가 그것이다. 두 성보는 재료와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착용이 아니라 예경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됐으며, 발원자가 여성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자수가사, 18세기 후반~19세기 말, 비단에 자수, 244×65㎝, 서울공예박물관, 보물. 사진=서울공예박물관



자수가사의 세부. 사진=서울공예박물관



가사도, 1902년, 무명에 채색, 232.5×111㎝, 서울 청룡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사진=국가유산청

바늘과 실로 이룬 수불(繡佛)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자수가사는 불보살, 경전, 존자를 수놓아 삼보에 대한 예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현존 유일의 가사다. 자수가사의 속에 붙인 명주에는 "무자생 곤명 박씨가 수불을 발원(繡佛發願戊子生坤命朴氏)"했으며, "비구 해붕천유가 증명(證明比丘海鵬天遊)"했다는 내용의 묵서가 있었다고 전한다. 비록 단편적 내용이긴 하나, 여성 재가 신도가 공양했고 당대의 고승이 증명을 맡은, 예불을 위한 '수불'이란 점을 알려 주기에 중요하다.

해붕천유는 순천 출신으로 선암사에서 출가했던 해붕전령(海鵬展翎, ?~1826) 스님이다. 연구 초기에는 해붕전령 스님의 활동 시기를 고려해 곤명 박씨가 무자년인 1768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자수가사는 18세기 후반에 조성됐다고 추정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곤명 박씨가 1828년에 태어난 재가 여성 불자이며 자수가사는 19세기 말에 조성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곤명 박씨와 해붕천유 스님과의 관계나 이 가사 불사의 구체적인 정황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 살피기 어렵다. 다만 해붕천유 스님의 출가 사찰인 선암사에 삼보명 자수가사(三寶名刺繡袈裟)가 전해진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선암사와 서울공예박물관 소장의 두 자수가사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두 가사는 최고의 품계에 해당하는 25조(條)의 대가사이다. 조각의 세로줄을 뜻하는 조(條)의 수는 가사의 품계(品階)를 나타낸다. 두 가사는 125조각의 비단을 연결해 만들어졌고, 각 줄마다 4면은 길고 1면은 짧은 4장 1단(四長一短)의 구성이란 점도 동일하다. 두 가사가 불 25위, 보살 50위, 존자 25위 및 25책의 경전을 수놓아 장엄됐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두 가사에는 차이점도 여럿 있다. 우선 서울공예박물관 자수가사는 예경을 위한 '수불(繡佛)'로서 조성됐다는 점이 제일 다르다. 자수가사에 착용을 위한 가사의 끈[纓子]을 달지 않은 이유이다. 실제 착용을 위한 가사의 상단에 보이는 일월 자수장식이나 네 모서리의 사천왕 자수장식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또한 선암사 삼보명 자수가사에는 삼보가 문자의 형태로 수놓인 반면, 서울공예박물관 자수가사에는 동일한 요소가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된 것도 큰 차이점이다.

자수가사에는 위부터 아래의 순서로 첫째 단에는 부처, 둘째와 셋째 단에는 보살, 넷째 단에는 경전, 다섯째 단에는 존자가 정연하게 배치돼 있다. 백색의 비단 바탕 위에 갖가지 색깔의 비단실을 이용해 다채롭게 수놓은 불보, 법보, 승보의 모습은 저절로 찬탄을 불러일으킨다. 정중앙의 1조가 100위의 부처, 보살, 존자를 배치한 기준점이 된다. 주폭인 1조에는 부처와 보살, 경전, 존자가 모두 정면향으로 표현된 데 반해, 그 좌우로는 불보살과 존자가 중앙을 바라보는 측면향으로 묘사됐다. 이러한 구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경전이다. 경전은 어느 줄에 배치됐는가와 관계없이 정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로형 혹은 세로형으로 표현되거나, 오른쪽 혹은 왼쪽을 향해 몇 권씩 비스듬히 겹쳐 둔 모습으로도 묘사됐다. 책의 형태나 놓인 방향에 관계 없이 경전 명칭이 명확히 제시된 것도 특징이다.

붓으로 그린 가사

서울공예박물관 자수가사에 보이는 도상과 구성은 1902년에 조성된 청룡사 가사도에서도 확인된다. 화승들은 기본적으로 25조의 가사 제작법에 근거해 화면을 구성하고, 화면 좌우 가장자리에 1줄씩 더해 위아래로 사천왕각 2위와 화기란을 배치했다. 이 같은 사천왕의 배치는 가사 네 모서리에 부착되는 사천왕첩을 연상시킨다. 붉은 가사의 가장자리에는 실제 가사처럼 바느질의 위치와 땀수도 섬세하게 그려졌다.

한편 경전의 표현은 자수가사에 보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조선 말기에 크게 유행했던 책가도(冊架圖)를 연상시킨다. 책과 각종 진귀한 물건들이 책가 안에 놓인 모습을 그린 그림을 책가도 혹은 책거리라고 한다. 18세기 후반에 궁궐을 장식하는 그림으로 시작된 책가도는 19세기에 접어들면 민간으로도 확산됐고, 책가 없이 책과 여러 기물만을 그린 책거리도 나타났다. 이를 종합할 때, 청룡사 가사도는 실재하는 자수가사와 책거리 그림을 참조해 형성된 유례 없는 불화라고 할 수 있다.

화기에 의하면 이 불화는 본래 양주 수락산 학림암(鶴林庵)에 봉안됐던 것이다. 화기에는 고종과 당시 황태자였던 순종 내외, 영친왕과 순비(淳妃, 후일의 순헌 황귀비 엄씨)의 안녕을 축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녀 병오생 정씨 청정화(信女丙午生鄭氏淸淨華)가 대화주(大化主)로 참여했고, 별도의 시주자가 명기돼 있진 않다. 축원문의 형식이 순헌 황귀비가 발원한 불화와 같고, 다른 불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형태의 불화라는 점에서 순헌 황귀비가 주축이 돼 발원한 불화로 짐작된다.

해탈의 옷, 공덕의 옷

〈불설가사공덕경(佛說袈裟功德經)〉에서는 가사에는 위덕(威德)이 있어 이를 수하는 이는 스스로 복전이 되며, 가사를 짓는 이는 속히 수승한 과보를 이룬다고 설한다. 또한 가사를 조성한 이는 온갖 재앙에서 벗어나고 그 가사에 공양한 사람에게는 백복(百福)이 구름처럼 일어난다고 가르친다. 19세기에 이러한 경전이 필사되고 널리 유통되면서 가사 공덕에 대한 인식이 더욱 고조됐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가사는 수행자의 몸을 보호하고 깨달음의 길을 드러내는 해탈의 옷이며 이를 조성하거나 공양하는 일은 불가에서 큰 공덕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 조선의 여성들은 바로 이 공덕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고 이에 감응하여 자수로 또 회화의 형식으로 가사 불사를 발원한 것이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바로 잡습니다 1555호 18면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에서 불암사(佛巖寺)를 불암사(佛庵寺)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를 바로잡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불기 2570(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을사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70(2026)년 병오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기남부지사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010-5323-0834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광주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대구경북지사	010-4152-4376	김선행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강원지사	010-7339-8688	이동격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현대불교신문